## 금강산 육로관광의 정치·경제적 효과

□ 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허용의 의미

- **북핵 파문 속에서도 경제 강국 건설과 성공적인 개혁·개방 추진을 위해 남북경협을 계속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와 실리주의를 반영함**
  - **(특구 지정)** 기존 합의 사항의 법제화로 투자의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음
  - **(육로관광 허용)** 분단 50년만에 해로관광에 이어 육로관광이 열림으로써 남북한 직교역 체제와 3통(통행, 통상, 통신)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육로관광의 정치·경제적 효과

- **(정치·사회)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긴장 완화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불안정한 북미 및 남북관계에서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긴장 완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상호 이질감 해소에도 큰 효과 예상

- **(경제) 외자 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 완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큰 효과 기대**
  - 육로 연결은 러시아~한반도~일본의 TSR과 TKR 연결의 시발점이 될 것임
  - 육로관광은 금강산 특구로의 접근성과 비용 및 시간 절감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대 →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 향상 → 금강산 사업에 대한 재투자 자금 및 외자 유치 증대 → 시설 투자 및 타지역 연계 관광 촉진 등으로 추가적인 관광 수요 창출 → 관광객 증대 등의 선순환 구조 형성

□ 금강산 관광사업의 환경 전망과 과제

- **(전망) 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허용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과 대북 지원 논란과 관련한 국민적 여론의 악화, 자본 유치의 차질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임**
- **(과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금강산 사업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고려, 계속 추진**
  - 정부는 금강산 사업을 한반도 평화안정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란 뉴-비젼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함

# 금강산 육로관광의 정치 · 경제적 효과

## 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허용의 의미

- **북핵 파문 속에서도 경제 강성대국 건설과 성공적인 개혁 · 개방 추진을 위해 남북경협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와 실리주의를 반영함**
  - **(특구 지정)** 비과세와 자유로운 외화 반출입 허용 등 기존 합의 사항의 법제화로 투자의 불안정성이 크게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였음 → 이는 그 동안의 자력갱생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회생 전략'으로의 정책 변화를 시사함
  - 특히, 특구법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을 포함시킨 점과 '관광지구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은 남한 자본 유치와 북한내 타지역의 연계 관광 등을 시사하고 있음
  - **(군사분계선 통행 문제 해결)** 북측은 DMZ 관할권이 유엔사와 북한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리구역의 통과 인원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입장에서 보였으나, 지난달(1. 27)에 이를 후퇴 ·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
  - **(육로관광 허용)** 분단 50년만에 해로관광에 이어 육로관광이 열림으로써 바닷길, 하늘길에 이어 땅길을 열렸으며, 이는 남북한 직교역 체제와 3통(통행, 통상, 통신)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함

## 육로관광의 정치 · 경제적 효과

- **(정치 · 사회)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긴장 완화로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와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정치 · 군사)** 불안정한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대화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으로 긴장 완화에 기여하며, 군사분계선의 통행으로 한반도의 탈냉전 분위기 조성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됨
  - **(사회 · 문화)** 대규모 물적 · 인적 교류의 확대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에 따른 상봉 기회 증대 등으로 남북 상호간의 인식 제고와 이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경제) 외자 유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남북한 경제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며, 이는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 완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남북한 경제)**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따른 국가 위험도 감소로 외자 유입이 증대되고 이는 남북한 양측의 국내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임
  - 특히 육로 연결은 시베리아~한반도~일본을 연결하는 가스 송수관 건설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한반도횡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임
  - **(남한 경제)** 금강산 특구로의 접근성 제고와 비용 및 시간 절감 등으로 인한 관광객 증대 → 사업의 수익성과 경제성 향상 → 금강산 사업에 대한 재투자 자금 및 외자 유치 증대 → 시설 투자 및 타지역 연계 관광 촉진 등으로 추가적인 관광 수요 창출 → 관광객 증대 등의 선순환 구조 형성
  - 또한 속초와 고성 등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 전체의 경제 진작에도 큰 보탬이 될 것임[한국은행(2002. 12)은 육로관광에 따른 강원도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383억 원의 매출액 증가와 625억 원의 생산 유발, 35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2,238명의 고용 창출로 추정]
  - **(북한 경제)**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수입과 특산품 판매료, 관광특구 개발에 따른 인건비 수입 등의 증대로 특구와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외화 수입 증대 → 북한의 경제난 완화와 개혁·개방 촉진 → 북한 경제의 남한 의존도 증가와 남북한 경제력 격차 완화
  - **(남북경협)** 투자 활성화와 이를 위한 시설 및 원부자재의 반출 증가는 물론, 육로 개통으로 직교역 체제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됨 → 이는 개성공단 착공을 비롯한 여타 경협 사업으로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임

## 금강산 관광사업의 환경 전망과 과제

- **(전망) 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허용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과 대북 지원 논란과 관련한 국민적 여론의 악화 등으로 낙관할 수 없는 입장임**
  - **(기회 요인)** 특구 지정과 비용 및 시간 절감 등으로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수익성이 확보되면 금강산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임

· 현대경제연구원(2001. 9) 전망에 의하면, 본격적인 육로관광이 이루어지면 관광객 수요는 약 40만 명이, 단체 수학여행이 이루어지면 10만 명, 위락시설 확충 수요는 19만 명, 승용차 개별 관광 수요는 25만 명, 북한내 타지역 연계 관광이 이루어지면 24만 명이 추가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2006년경에는 128만 명, 2010년에는 156만 명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위협 요인) 지속적인 신규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의 자율성 확대는 물론, 숙박·위락 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 북미 및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태임

· 또한, 2003년 정부의 관광 경비 보조금(1억 원)과 한국관광공사의 투자금(116억 원)도 지난해 규모(1,000억 원 = 216억 원 + 784억 원)의 11.7%에 불과함

< 금강산 관광사업의 환경 전망 >

| 기회 요인 | 위협 요인 |
|---|---|
| - 특구 지정으로 법적·제도적 틀 마련<br>- 육로관광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시간과 비용 절감 등으로 관광객 증대<br>- 수익성 제고로 인한 투자 여건 호조로 추가적인 관광 수요 창출<br>- 특구 지역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br>- 사업 지속에 대한 북측 당국의 의지 | - 북핵 문제 해결 지연<br>- 북핵 파문에 따른 남북관계 불안정<br>- 현대의 대북 송금 파장으로 새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 약화<br>- 이로 인한 국내외 자본 유치 차질<br>- 금강산 관광의 정부 보조금 대폭 삭감 (200억 원 → 1억 원) |

- (과제)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 속에,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란 새로운 비젼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차질없이 추진

·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금강산 사업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부정적 여론에도 흔들림이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함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한반도의 평화안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금강산 사업은 이의 촉매재 역할을 할 것임

홍순직 연구위원 sjhong@hri.co.kr ☎ 031-288-7336